



“맥 추 감사절이 뭐하는 날이야? 맥 주 먹는 날이야?”

담임목사 신상균 어린 시절 친구들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서울에서 살던 나는 맥추감사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인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 정도였다. 서울에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점점 더 시들해졌다. 그러나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 맥추감사절이야말로 의미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 맥(麥), 결실할 때 추(秋)로서 '보리를 결실하여 감

사하여 드리는 절기'라는 뜻이다.

사람은 첫사랑, 첫아기, 첫돌, 첫만남, 첫날, 첫인상, 첫 직장과 같이 처음에 많은 의미를 둔다. 왜냐하면 처음이 시작이기 때문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었다. 다 주인의 것이었다.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 자기의 곡식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

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감사하며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축제를 즐겼는데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이다.

농촌에 와서 살다 보니 농사야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햇빛과 비, 기온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자연을 만드신 조물주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수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연 앞에서 더욱 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감사하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첫 열매는 끝나지 않고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일주일의 처음인 주일, 하루의 처음인 새벽, 한 달의 처음인 1일, 농사의 첫 결실인 맥추감사절, 우리가 감사할 때 2016년은 감사의 해가 될 것이다.



"소월리 행복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주민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충청북도 제천시의 서쪽 관문이며, 38번 국도의 천등산 다릿재 터널을 제천 방향으로 지나서 나타나는 첫 번째 마을인 소월리는 요즘 마을 주민이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행복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월에는 각 가정의 재활용품들을 공동으로 수거, 분리해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4월에는 소월 입구부터 마을 입구에 이르는 안길 250여m구간에 흉단풍과 철쭉을 심어 마을 꽃길 가꾸기로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들었다. 가구별로 구간을 정



▲일손돕기 공동급식.

해 내 집 화단처럼 가꾸며 마을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마을, 우리 마을이다. 또한 4월에는 단체여행을 다녀왔고,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마을회관에 모여 강사로부터 난타를 배우기도 한다. 난타에 적합한 생활소품들을 준비해서 연습하는 생활난타는 일상 생활인 농사에서 쌓인 피로감을 풀고 단합할 수 있어 매주 참여하는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도 한다. 지난 6월 21, 22일에는 농번기 일



손돕기의 일환으로 제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 점심 급식을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올 수 있는 식 재료를 가져와서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점심 식사를 나누고, 바빠서 자주 못 만난 이웃들과 만나 얘기꽃을 피우며 뜨거운 한낮의 휴식 시간을 공유하기도 했다. 소월리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마을 소식을 만들어 행복한 마을의 행복한 소식을 전하며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소월 이수근>

교회부설 하늘샘 심리상담센터 개설운영

밥맛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여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끼며, 외로움에 밤잠이 오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이야기 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힘들어 할 때가 있지는 않은

심니까?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조차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여 허탈감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하고 싶어도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망설이며 혼자 앓고 있으시다면, 하늘샘심리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늘샘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 부부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 살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 문제를 만난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작은 문제가 쌓이다 보면 태산같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건

강하십니까? 상담을 통해 문제를 알고, 나를 알고, 나답게 되는 회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회 상담시간은 1시간이고,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상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물론 백운교회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무료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샘심리상담센터 010-2782-0115)
 <정남미 사모>

상담을 통해 문제를 회복하는 계기로

맥추 감사주일 "가족찬양대회"

일시 : 7월 3일 오후예배
 장소 : 백운교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편 26절>

백운교회